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아상과 동료순교자
 특집 경축행사
 11월 14일 독서 : 지예 3, 1-9
 11월 21일 독서 : 로마 8, 31b-39
 11월 28일 독서 : 루가 9, 23-26

순정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 39b)

강론

순교자들의 영전에

김윤섭 신부 / 시기동 천주교회

순교자들의 축일을 맞이하여 그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예수의 수난사를 묵상해 본다.

예수와 예언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죽음을 당한 이
 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가 죽은 이유는 나자렛
 촌놈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 또 자칭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사제들의 미움을 받아 하느
 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예수는 하느님과 인간을 위한 일이라면 모세의 율
 법까지도 과감히 수정했고, 율법의 정신을 살려 하느님의
 뜻을 실천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던 것
 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 갈릴레오는 “지구는 둥글다”고 말한
 진실 때문에 종교재판에 의해 처형되었다. 오늘 이 세상
 곳곳에서도 진실과 정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억압과 위선, 그리고 거짓증언과 권위에 의해
 누명을 쓰고, 희생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
 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백성의 원로들과 바리사이과 사람들, 종교 지
 도자들과 대사제들의 거짓된 행위와 위선을 보고 “이
 독사의 죽속들이”라고 외치며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러
 나 위선자들은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했
 다는 죄목으로 예수를 미친 사람처럼 흥포를 입히고,
 놀리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았다.

예수의 삶을 본받고, 진리와 정의를 외치며 신앙을
 증거한 예언자들과 순교자들의 삶이 그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 그 옛날 예수 시대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과 사람들, 대사제와 종교 지도자
 들처럼 위선에 빠져 진실을 외치기는커녕 자신들의 부
 정과 부조리를 감추기 위해 급급하지는 않는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
 으로 남아 진리를 증거하고 정의를 외쳐야 할 종교인들
 에게까지도 거짓과 위선,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된 세상에
 예수를 추종하며 진리와 정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곧 순교자들의 삶과 나자렛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오늘 성안드레아 김대건과 동료 순교자들의 대축일을
 지내면서 김대건 신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자.
 “환난과 불의에 항복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시오.”

소리

M의 명령을 위하여

납량(納涼) 특집 드라마로 화제거리가 되었던 M이
 재방영되고 있다. 여름철 특집극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으스스하였다. 그런데다가 무슨 심령현상(心靈現像)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 약간은 황당 무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시청하다가 그만두었다고
 도 한다. 그 드라마에서 M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또
 자기를 죽이는 일(낙태수술)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중심
 으로 복수극을 펼친다.

낙태는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로부터 떼어 내는 것을
 말한다. 낙태수술은 뱃속의 혹을 떼어 내는 것이 아니다.
 낙태수술로 떼어 내는 것은 모체의 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 곧 한 생명체이다. 그러한 낙태수술이 우리 나라
 에서만도 해마다 약 1백50만건 정도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하루면 약 4천이 넘는 생명을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인위적으로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유야 어
 떠하든, 낙태란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했던 부모의 동의
 내지는 자발적인 참여로 제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형법) 개정을 다룰 것이라고
 한다.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어떠한가
 낙태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것은 살인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올 추석절에는 우리들 나이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계산하산 조상들의 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자.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M의 명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

순정이 산책



특 집

신자들의 상장례 예식

지난 1993년 12월 14일, 한국 천주교 사목연구소 상제 레토착화 특별위원회는 「상제례예식」에 관한 최종시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여 신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주의 사항

죽은 이의 이름, 세례명, 직위 등을 적은 위패나 지방은 그대로 사용하되 말미에 적은 신위(神位)라는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주(祭主)가 위패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분향하고 잔을 받아 미리 준비한 그릇(모사기)에 술을 조금씩 따르는 삼제(三祭), 고인이 음식을 들 수 있게 하는 삽시(插匙: 밥그릇 위에 숟가락을 꽂는 것), 제사 후 위패와 영정을 따로 모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 등 제사 절차는 유교식으로 봉행한다.

이 과정에서 제사(차례)의 시작을 알리는 성호 굿기, 향상(香床)에 향로와 향합, 사진, 촛대와 중앙에 삽자가 놓여 모시도록 한다.

* 준비 사항

마음의 준비: 평소 불편하게 지낸 이웃과 기꺼이 화해하기로 다짐하며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한다.

몸의 준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앞서 며칠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취하지 말고, 고기를 먹더라도 탐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온 가족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자선을 행한다. 하루 전에는 목욕하고, 제삿날에는 정중한 옷으로 갖추어 입는다.

상차림: 하루 전부터 집 안팎을 정돈하고, 제사음식을 차려 놓을 탁자를 손보고 제사에 쓸 그릇은 깨끗이 닦아 놓는다. 제삿상은 집안의 관습에 따라 차린다.

* 예식의 순서

• 제사 준비가 되어 영전과 위패를 모시면, 제주(祭主)는 제사의 시작을 알리고, 성호를 굿는다.

• 참석한 모든 이는 두 번 절한다.

• 제주가 영정(위패)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분향하고 잔을 받아 미리 준비한 그릇(모사기) 위에 삼제(三祭: 술을 세 번 조금씩 따르는 것)한 다음 돕는이에게 주면, 돕는이는 잔을 올리고 밥그릇 뚜껑을 열어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참석한 모든 이는 차례로 나아가서 잔을 올린다. 그러나 제주 이외에는 삼제는 하지 않는다.

•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제주가 조상께 고한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오늘 다시 ()께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드리는 저희의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를(을) 기억하며 이 제사를 올립니다. ()께서는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화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진구하여 주십시오.”

• 제주의 말씀

“사도 바오로는 이사야 예언자를 인용하여 이렇게 진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로마서 14, 7~9 절을 봉독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 ()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고 계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되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백성입니다”로 맺는다.

• 이어서 주부가 나아가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놓는다. 제주 이하 참석자는 두 번 절한다. 절한 다음 참석자는 조상과의 통교를 생각하며 잠시 묵상한다.

• (묵상이 끝나면) 국그릇을 거두고 냉수나 숭늉을 올린다.

• 제주는 참석자 모두와 함께 두 번 절하며 작별 베례를 한다. 제사를 마치면서 조상과 가족, 친척들과의 통교를 더욱 깊게 할 것을 결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성가를 부르고 마침기도를 한다. (가톨릭 성가 438, 483 등)

• 영정과 위패를 따로 모신 다음, 참석자들은 술과 음식을 나눈다. 이 식사는 사랑과 일치(共融)의 식사이며 선조와 가족간의 통교를 더욱 깊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등 선조들의 말씀을 전해 주며, 가정의 현실과 전망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의 기쁨을 이웃, 특히 소외된 형제들에게도 확장되도록 한다.

• 정리: 박대길(벨라도)

주부 국악교실 모집

민요장고, 판소리고법, 설장고, 가야장단

- 접수기간: 9월 25일까지
 - 개강: 9월 30일
 - 수강료: 3개월 45,000원
 - 장소: 사회교육센터(동국교내)
- ☎(0652)77-1941, 87-5906

건강상담환영 성신당 한약방

이 흥 재(요셉)

전주우아동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신속 배달 광진페인트

신축, 실내장식, 집수리 전문

김 태 정
원 점 순(점마)

전주시 서서학동 152-3번지

☎ 88-7672, 88-1285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중 화(실비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교리상식 ㉔

순교자 성월

■ 순교란 무엇인가?

신앙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을 말한다. 즉, 죽음으로써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다.

순교는 실제로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 의해 초래되어야 하며 그 죽음을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순교는 박해를 계기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박해가 없어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마리아 고래띠 성녀처럼 정경(순결)마리아를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 순교자 성월의 의미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을 당한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행적을 기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달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일찌기 9월을 한국 순교복자 성월로 정하여 순교복자들을 공경하여 왔으나, 한국 순교복자 103위 전원이 1984년 5월6일 성인품에 오르게 됨에 따라 한국 순교자 성월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스도교인은 언제나 순교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하지만(교회헌장 42) 순교자 성월 동안에는 특히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본받고 생활하면서 신앙체신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한다.

교구 소식

1. 축! 견진: 9월25일(일) 오전10시30분 대야 성당
 2. 천호 피정 안내: 9월24일~25일, 주제-하느님께 봉헌된 삶(바른 신자생활의 수칙), 강사-장인산 신부, 문의 73-6600
 3. 교구청 휴무: 9월18일~21일, 추석 연휴 관계로
 4. 소리개재 교회모지 추석 합동 위령미사: 9월20일(화) 오전11시-합동연도, 오전11시30분-합동 위령미사
 5. 교리교사 월례교육(4차): 9월24일(토)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6. 혼인강좌: 9월25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각 10,000원
 7. 화산동 성당 주부대학: 9월24일(토) 오전10시, 주제-내 건강 도로 찾는 새 출발 강사-전복치대 지은정 교수
 8. 광주월곡동 나눔의 집 개설 및 아동모집: 개설목적-갈 곳 없는 아이들 보금자리 제공 대상-국민학생 남자 어린이 10명 내외 후원 및 문의: (062) 524-1245
- ※ 축! 영명: 21일(성마태오) 황인규, 김진석, 유중환, 김진화, 박종탁 신부님

-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회: 9월25일 오후2시 광주가톨릭센터 606호 (02) 923-1946
- 사람의씨튼수녀회: 9월25일 오후1시30분 동산동천주교회 (0652) 212-3233
- 예수그리스도의고난회 피정: 9월24일~25일 오후4시 광주수도원 (062) 571-5004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환경보호(7)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물을 10%씩만 아껴 쓰면 연간 2백40억원의 비용이 절약됩니다. 무심하게 버려지는 수도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 일 생 수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채취하고 있는 천연 알칼리수
작은 예수회
☎(0652)225-4678
호출기 015-682-4678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초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까지, 12월배달)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성바로 수도회
(성소자 대피정)
· 일시: 10월1일~3일
· 장소: 성바로수도회 본원
· 대상: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젊은 남성
· 회비: 10,000원
· 준비물: 성서, 필기도구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교졸 이
상의 미혼여성
· 일시: 9월25일 오후 2시
· 장소: 삼랑진 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신구약 합본 성서

요심이 (1099) 김병오

깊은 감사 드립니다.
용머리 바자회에 협조해 주신 모든
본당 신부님, 신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용머리 성당 현 유복 신부

여사무원 모집
· 자격: 25세 미만 미혼,
컴퓨터 기능 보유자
숙·식 가능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세례증명서 각 1통
· 연락처: (0654)63-7212
오룡동 천주교회

호성동 성당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
· 때: 10월13일(목)~16일(일)
· 장소: 호성동 성당
(전라여중 뒤, 승마장 앞)
☎ 241-114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25주일
- ◎ 군인주일 2차헌금: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내일까지 사무실
- 2. 추석 미사시간 안내
19일-새벽 5시30분
20일(추석)-새벽 5시30분
21일-저녁 7시30분
- 3. 유아 세례: 24일 후 3시, 사무실에 신청
- 4. 모임: ①대건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24일 전 10시
③꾸리아-25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 5. 전입을 환영합니다.
· 안순화(아가다) 중노14반 ☎ 88-7914
· 유광순(베드로)가정 인후8반 ☎ 244-3909
- 6. 금주 청소: 중노18, 19반
차주 청소: 중노20, 23반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증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25주일!
- 1. 설모회: 9월18일(오늘) 공식미사 후
- 2. 한가위(추석) 대축일 미사 시간: 9월20일(추석) 오전 6시, 오전 10시
- 3. 영세식: 10월8일(토)
- 4. 예비자 집중교리: 10월4일(화)~10월7일(금)
매일 저녁미사 후
- 5. 성령쇄신 묵상회: 기간-9월26일(월)~10월1일(토) 오후 8시
장소-서학동 성당
- ※ 신앙인으로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6. 초동부 남전주지구 체육대회: 9월25일(일) 오전 9시
장소-성심학교
- 금주 전례: 해설-이동재(베네딕도)
독서-송병운(미카엘) 부부
- 차주 전례: 해설-김종호(프란치스코)
독서-김강열(아오스덤) 송 로사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장길평

- ◎ 군인주일 2차헌금: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 1. 르완다 난민 돕기 2차헌금: 오늘과 20일 추서에 있음.
- 2. 추석미사: 새벽 6시, 10시30분 미사
-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4. 소리개제 교회모지 추석 위령미사
· 합동연도-11시 · 합동미사-11시30분
- 5. 치명자산 미사: 일시-매주 목요일 10시30분
9월 순교자 성월동안 치명자산 성당(본당 저녁미사 있음)
- 6. 본당의 날 행사: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나눔잔치
- 7.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 8. 빈첸시오회: 24일(토) 오전 10시
- 9. 유아 세례: 24일(토) 오후 7시(사무실에 신청 바람)
- 10. 성당 청소: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 11.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이상인
- 12. 추석 전례: 새벽미사-형인순
공식미사-허정식
- 13.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정승란
봉헌-안철만
- 14. 혼인감좌: 25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카톨릭센터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 1. 금주: ①바비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2. 추석 합동미사: 오전 5시30분, 오전 9시
- 3. 성지회: 23일(금) 오후 8시
- 4. 영세식: 25일 공식미사
집중교리: 22일~24일 오후 8시
면담: 22일, 23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 5. 차주: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영세식-공식미사중
③차량축복식-공식미사 후
④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6. 고경 전례 안내
①고백성사-평일미사 후
②혼인면담-매주 토요일 오후 4시
③성체강복 및 조배-매주 첫 목요일 오전 10시
④병자 봉성체-매주 첫 금요일 오후 2시
⑤유아 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⑥차량축복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20일(화) 오전 10시, 접수-사무실에
- 2. 모임: ①올드레이-24일(토)저녁 ②성모회-다음주일
- 3.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다음주일
- 4. 지속적인 성체 조배: 신청바람(1주간 1번 1시간)
- 5. 안나회 소속도 방음: 27일(화)
- 6. 금주 청소: 성실하신 동정녀Pr
- 7. 차주 청소: 천주의 모친Pr
- 8. 금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정광철 ②이순자
봉헌-안복성씨 부부
- 추석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박귀철 ②이석남
봉헌-김중석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한동옥 ②주영혜
봉헌-최경림씨 부부

※ 용어 해설

판공성사: 한국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과 성탄 때에 받는 고백성사를 판공성사라고 한다.

이 판공성사란 말은 한자의 뜻 그대로 힘써 노력하여 공로를 갖춘 다음에 받는 성사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공로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교리 활교가 따른다. 진통에 의하면 판공성사를 받기 전 교리 시험(이것을 활교라 했음)을 거쳐서 성사표를 받은 다음 고백소에서 이 성사표를 신부에게 내밀고 성사를 받는다.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삼근

- ◎ 르완다 난민 돕기 2차헌금: 피자 1장이면 르완다 어린이 600명의 한끼 식사, 개(강아지) 미용비? 600명분의 한끼
-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20일 새벽 5시30분, 전 10시30분
선영들을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 2. 본당의 날 성지순례 및 L.M 옥외행사: 25일 전 9시 출발, 회비-오천원(도시락 개인지참) 당일 본당미사-새벽 저녁미사
- 3. 21일 어머니미사: 23일(금) 연기, 21일 9시30분 각 Pr은 23일 전 9시30분으로 연기, 21일 저녁미사 7시30분
- 4. 어린이양 잔치: 10월9일 예정 성가경연대회 준비
- 5. 예비자 교리 낮반 신설: 매주 목요일 전 10시
- 6. 애령회 임원 개편: 회장-취덕남, 부회장-김윤곤, 총무-박성자, 다년간 수고하신 김덕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7. 혼인감좌: 다음주일 전 9시 센터 면접시 수료증 제출
- 8. 성소 후원의 날: 오늘 공식미사 후 회의 회비-사무실
- 9. 회의: 성모회-23일 어머니미사 후
엠마누엘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 ※ 다음주일 해당되는 회의는 오늘 공식미사 후 모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